

<32 회 감정평가사회계학 총평>

1 차시험을 보신 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2 회 감정평가사 회계학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년도 감정평가사 회계학의 난이도는 중하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풀수있는 문제와 풀지말라고 낸 문제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풀어도 쉽지 않았을 A 형 44 번, 49 번, 64 번, 70 번, 72 번 등 자주 기출되지 않았던 문제를 버리신 분들은 고득점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말문제의 비중이 2020 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계산문제로 압박을 준 2020 년도 시험의 난이도 조절이 실패한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제유형과 난이도를 이렇게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앞으로 1 차시험을 볼 수험생들에게 좋지않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기존에 높은 비율로 출제되던 유형자산의 출제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회계학공부는 특정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가져가야 합니다. 기출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를 넓혀서 공부하신 후 시험장에서 풀수있는 문제를 골라내는것이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다만, 향후 시험에서 올해보다는 유형자산문제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세번째로, 원가관리회계는 역시 효율적인 과목입니다. 올해 원가관리회계는 71 번과 80 번이 생소한 주제고, 72 번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원가관리는 10 문제 중 7~8 문제는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으나 출제유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형을 갑자기 바꾸다 보니 강사로써 향후 시험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와 유형을 또 바꾸어서 내년에는 회계학에서 또 폭탄이 떨어질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학 공부는 정도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라는 것은 회계의 원리를 익히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부범위를 좀 넓히셔서 회계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끝나고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많을겁니다.

제 경험상 1 차에 합격하신 분들은 “마킹을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하실텐데 중학교때부터 OMR 을 작성해보신 여러분들이 이부분에서 실수하실 일은 없고, 수정테이프 역시 성능이 좋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쉽게도 1 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들은 충분히 휴식하신 후 문제점을 파악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계학의 경우 다시풀면 풀리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시험장에서

틀리신 이유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압박감을 이기는 법은 쉬운문제 고르기와 20 문제만 풀기입니다. 회계학에서 좋지못한 점수를 얻으신 분들은 50 분안에 20 문제만 푸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침착하게 풀다보면 길이 열립니다.

이의제기 관련해서는 받아드릴 여지가 있어보이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구상 애매한 부분이 있는 문제는 있으나 정답을 고르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험생분들을 위해 납득이 안가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지원해드리겠으니 hown_tax@naver.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